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1.3(금) ~ 2023.11.9(목)

제공일시 2023 11 1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1.3(금) ~ 2023.11.9(목)

제공일시 2023 11 1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車 배기가스 규제 한발 물러선 EU... 환경단체 "제2 디젤게이트 조장"

- 유럽연합(EU)이 자동차 회사들의 압박과 로비에 못 이겨 배기가스 오염규정인 '유로7(Euro7)'을 완화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 환경 및 보건 전문가들은 "오염규정이 완화되면 약 1000억유로(약 139조원)의 보건 및 환경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함
- EU집행위원회 산하 민간연구기관 CLOVE(Consortium for Ultra-low Vehicle Emissions) 컨소시엄은 "EU 국가들은 이산화질소 규제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유로7로 인한 기후관련 재정절감 효과의 절반가량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EU 27개국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이산화질소 허용량과 주행 시험 강도는 이전 규정인 유로6과 대동소이함. 자동차업계의 강한 반발로 이산화질소 규제를 강화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 환경단체들은 "유로7 규제완화는 제2의 디젤게이트"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섬

(뉴스트리 2023.11.8) 이준성 기자

2. 미 바이든 행정부, 저탄소 소재 건설 프로젝트에 20억달러 투자

- 미 종합서비스국(GSA)은 저탄소 아스팔트, 콘크리트, 유리, 철강 등 저탄소(LEC) 소재를 사용하는 정부 건물건설 프로젝트에 20억달러(약 2조657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힘
- 미 정부의 연방 조달 및 자금지원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저탄소 건설자재 사용을 우선시하도록 지지하는 연방구매청정이니셔티브를 출범한데 이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의 건물, 차량, 조달 등 운영전반을 개조하기 위한 것임
- 저탄소 자재조달을 우선시하는 39개주 지역에 150개 이상의 연방정부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함

(ESG투데이 2023.11.7) 마크 시겔 기자

3. 기후대응 위한 첫 국제기금 '손실 및 피해기금' 전격 합의

- 전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 및 피해기금'을 마련하는데 동의함
- '손실 및 피해기금' 논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아부다비에서 열린 COP28 사전회의에서 이틀간 토론 끝에 해당 문제에 관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짐
- 합의된 내용은 우선 '손실 및 피해기금' 관리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맡고,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부유국을 중심으로 상위권 개발도상국이 주 자금원이 될 전망이다
- 아직 구체적인 자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후전문가들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

(뉴스트리 2023.11.6) 이준성 기자

4. AI 규제 앞장서는 美·英, 물밑에선 주도권 놓고 경쟁

- 한국을 비롯해 주요 28개국과 유럽연합(EU)이 참여한 'AI 안전 서밋(정상회의)'은 첫 만남에서 AI 규제에 대한 합의에 성공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옴
- 정부 당국이 AI 기술을 직접 통제한다는 내용의 규제안에 모든 국가들이 뜻을 모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임
- 이번 회의에서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를 비롯, 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 등 글로벌 테크 기업 대표들이 영국 정부가 신설하는 AI 연구소에서 AI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를 받기로 계약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 대부분 AI 기술 기업들은 주요 활동 무대인 미국의 AI 규제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옴

(조선일보 2023.11.4) 최인준 기자

1.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정부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 정부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입주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 지원을 위해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추진함
-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18개 사업 중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포함됨
- 포항시는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2027년까지 14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어 이차전지 기업들의 입주와 생산 적기를 위해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 이번 패스트트랙 발표로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면서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프레시안 2023.11.8) 오주호 기자

2. 환경부, 내일부터 탄소중립도시 후보지 면담… 최종 10곳 선정

- 환경부는 탄소중립도시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98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14일까지 면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힘
- 이번 면담조사는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감축 여건에 따른 탄소중립 전략, 지자체의 준비 정도, 민간 협력여건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도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임
- 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구조로 전환에 필요한 도시공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임. 이에 전국 8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함
- 환경부는 이번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우선 선발할 예정임
- 이후 탄소중립도시 추진전략,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내년 9월에 최종 대상지 10곳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할 계획임

(뉴시스 2023.11.6) 구우서 기자

3. 환경부 '물수지 현황 분석'… 가뭄 때 하수처리수 재활용 물 수요공급 파악 첫 착수

- 정부가 처음으로 지역별 물 수요량과 공급량을 조사하는 '전국 물수지 현황 분석'에 착수함
- 정부는 분석을 토대로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물 재이용 정책'을 활성화해 물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임
- 향후 20년간의 물 부족 정도를 추산한 결과에 따라 지역별 수자원 불균형 정도도 따져볼 예정임
- 환경부는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정책'을 확산할 방침임

(매일경제 2023.11.5) 류영욱 기자

4.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책임제 포함 안 한다… "쉽게 회수 가능"

- 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자재활용책임제(EPR)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전기차 폐배터리를 EPR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최근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선화한 것으로 파악됨.
-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EPR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면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로 유가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함
- NCM 폐배터리는 개당 가격이 300만원에 달하는 고가로 사용자들이 재활용 업체에 되팔수 있어 EPR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회수율이 높다는 의미임

(뉴시스 2023.11.2) 김혜경 기자

(동아일보 2023.11.2) 김예윤 기자

1. 에어프로덕트, 유럽 최대 '블루수소' 공장 건설

- 산업용가스회사인 에어프로덕트는 기존 로테르담 수소생산공장에 최첨단 탄소포집 및 이산화탄소 처리시설을 갖춘 유럽 최대 규모의 '블루수소'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26년 가동될 예정이며, 에어프로덕트의 수소 파이프라인네트워크를 통해 엑손모빌의 로테르담 정유소 및 추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이 프로젝트는 엑손모빌, 네덜란드 정부와의 장기계약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
- 에어프로덕트의 탄소포집은 기존 수소공장, 엑손모빌의 로테르담 정유공장에서 CO2를 포집하며, 포획된 이산화탄소는 해안에서 약 20킬로 떨어진 북해의 고갈된 가스전으로 운반돼 해저 3킬로 이상 깊이에 영구 저장될 전망이다

(ESG투데이 2023.11.6) 마크 시겔 기자

2. GM, 2028년까지 美 전기차 공장에 130억달러 투자

-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제너럴 모터스(GM)와의 잠정 합의에 따라 GM이 2028년 4월까지 미국 시설에 130억달러(약 17조277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GM은 이미 디트로이트 교외의 오리온 어셈블리에 40억달러(약 5조3160억원),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20억달러(약 2조650억원) 등 새로운 전기 자동차를 위한 투자 계획 중 일부를 발표함
- 새로운 투자에는 엔진 및 부품 공장뿐만 아니라 추가 볼륨을 지원하거나 추가하기 위한 조립 공장에 대한 수억 달러가 포함됨
- UAW는 GM과의 합의가 자동차 근로자를 위한 가장 큰 계약 중 하나라고 밝힘. 계약에는 25% 급여 인상, 보너스 및 이익 공유 지불 및 \$5,000 비준 보너스와 같은 기타 향상된 혜택이 포함됨
- UAW는 GM의 배터리 셀 합작 회사인 얼티엄셀즈(Ultium Cells)의 직원도 계약에 포함된다고 밝힘

(글로벌이코노믹 2023.11.5) 이태준 기자

3. 블랙스톤, 비스타 에퀴티 파트너스, 에너지 전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에너지 이그젠티플러' 인수

- 블랙스톤과 비스타가 '에너지 이그젠티플러(Energy Exemplar)'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 1999년 설립된 에너지 이그젠티플러는 최적화 기반 에너지 시장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함
- 에너지 이그젠티플러는 2017년 사모펀드 리버스 컴퍼니(Riverse Company)에 인수됨. 2018년부터 30% 성장해 현재 79개국에서 500명 이상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음

(ESG투데이 2023.11.2) 수잔 라히 기자

4. 블랙록, 세계 최대 DAC 탄소포집 프로젝트에 5억5000만달러 투자

- 블랙록과 에너지 메이저 옥시덴탈이 현재 옥시의 탄소 포집 자회사인 원포인트파이브가 건설 중인 세계 최대 DAC(직접공기포집) 시설이 설치될 예정인 스트라토스에 5억5000만달러(약 7309억원)를 투자하는 신규 파트너십을 발표함
- 이 계약에 따라 블랙록은 'Diversified Infrastructure 사업'이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 원포인트파이브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예정임
- DAC를 포함해 CO2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솔루션 대부분은 현재 초기 단계인데, 원포인트파이브의 스트라토스 시설은 완전 가동 시 연간 50만톤의 탄소를 포집하는 대형시설임
- 2025년 상업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이미 아마존, 전일본공수(ANA), TD뱅크 등의 회사들과 탄소제거 크레딧 구매계약도 체결돼 있음

(ESG투데이 2023.11.8) 마크 시겔 기자

5. 카브픽스, 세계 최초 해수를 용매로 이용해 이산화탄소 저장에 성공

- 아이슬란드의 탄소 포집 및 저장 스타트업인 카브픽스(Carbfix)가 해수를 용매로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해저에 위치한 현무암에 주입하고 흡착시켜 영구적으로 저장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함
- 카브픽스는 이산화탄소 1톤당 20톤의 물을 사용하는 이 기술을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함

(임팩트온 2023.11.8) 유미지 기자

1. 포스코홀딩스, 캐나다서도 리튬 개발 추진… 앨버타 주 투자청과 협력

- 포스코그룹이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 이어 북미에서도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함
- 포스코홀딩스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캐나다 앨버타 주 투자청(IAC)과 '유전염수 리튬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힘
-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홀딩스는 앨버타 주 내 유전염수 리튬 자원 개발에 협력할 파트너사를 물색하고, 리튬 개발이 용이한 광구를 찾아 투자를 검토할 방침임. 또, 최적의 리튬 추출 상용화공정을 실증하는 등 유전염수 리튬 사업도 추진함
- 회사는 이번 IAC와의 협약을 통해 기존 염수, 광석리튬 외에도 점토, 유전염수 등 비전통 리튬 자원으로 원료 공급망을 다변화할 방침임

(디지털타임스 2023.11.8) 이상현 기자

2. LX인터내셔널, 인니 니켈 광산 인수… “이차전지 핵심광물 사업기반 확보”

- LX인터내셔널이 1330억원을 들여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을 인수하기로 함. 자원사업의 주력을 기존 석탄에서 니켈 등 이차전지 핵심 광물로 전환하는 전략적 행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LX인터내셔널은 7일 이사회를 열고, 인도네시아 AKP 광산의 지분 60%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힘
- LX인터내셔널은 내년 2월 대금 납입 등 인수를 최종 완료하고, 단계적 증산을 통해 운영을 조기에 안정화 할 계획임. 지난해 기준 연간 생산량 150만t을 2028년까지 370만t으로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임

(헤럴드경제 2023.11.7) 김은희 기자

3. SKC 말레이시아 동박공장 가동 시작… 첫 글로벌 생산거점

-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말레이시아에 지은 첫 글로벌 동박 생산 거점이 가동에 들어감
- 말레이시아 사바주 코타키나발루 산업단지(KKIP) 내에 들어선 SK넥실리스 말레이시아 공장은 동박 단일 생산으로는 세계 최대인 연산 5만7천t 규모임. 투자 금액은 약 9천억원이 들어감
- 1공장은 올해 상반기 시운전과 시생산을 거쳐 지난달 상업 가동을 시작했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2공장은 내년 2분기 완공 예정임
- SKC는 첫 해외 공장인 말레이시아에 이어 내년에는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에도 연산 5만7천t 규모 동박 생산 공장을 완공할 계획임

(연합뉴스 2023.11.5) 김아람 기자

(한국일보 2023.11.5) 나주예 기자

4. 국산 LFP 배터리…현대차, 내년 개발

- 현대차그룹이 국내 기업과 함께 보급형-중저가 전기차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개발함
- 2025년 전기차에 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해 중국산 의존도를 낮출 계획임
- 현대차그룹은 자사 전기차에 고안정성 LFP 배터리를 탑재하기 위해 복수의 국내 중견기업과 협력,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됨
- 현대차그룹 LFP 배터리 개발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프로젝트로 내년 말까지 개발을 마칠 것으로 예상됨

(전자신문 2023.11.5) 김지윤 기자

5. 롯데케미칼-한전-스탠다드에너지, 차세대 ESS 솔루션 개발 나선다

- 한국전력공사, 롯데케미칼, 스탠다드에너지가 기존 에너지 저장 장치(ESS_Energy Storage System)의 한계를 극복하는 '바나듐이온배터리 활용 차세대 ESS 솔루션 연구개발 및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3사는 현재의 ESS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ESS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고 상용화 및 해외 진출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또,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체계인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와 에너지밸리 등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ESS 실증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임

(메트로신문 2023.11.2) 허정윤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11.3(금) ~ 2023.11.9(목)

제공일시 2023 11 1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美산림청, 탄소포집 위해 국유림 독점·영구 사용하도록 허용

- 미국 산림청이 국유림에 CCS(탄소저장)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제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7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 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는 목적이라면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개정·완화한 것임. 본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업들은 국유림이나 초원에 탄소를 영구 격리하는 CCS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음
- 기업들은 CCS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겠다는 부처의 제안을 환영했지만, 비영리 단체들은 국유림을 사유화하면 또 다른 환경 파괴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침
- CCS는 땅 속 깊은 심지층에 탄소를 포집 및 격리시키는 것이며, 지하에 대규모 파이프라인으로 탄소를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농지가 지리적 요건에 더 적합함
- 영구 격리를 위해 산림이나 토지를 확보하고 탄소를 농지 혹은 산림 밑에 장기적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부지 독점 및 영구 사용권도 얻어야 함. 그동안 미국 CCS 프로젝트는 이 요인들로 인해 제동이 걸림
- 환경단체 식량&물 워치(Food & Water Watch) 정책 책임자 짐 월시는 "국유림은 오염 파괴자들을 위한 쓰레기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과 주입 우물을 건설하면 국유림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함
- 美정부 측은 탄소 포집·격리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임.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CCS 프로젝트가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설계, 건설,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 산림청도 국유림 사용 요건과 절차를 한층 강화함. 국유림 사용을 위한 정식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1, 2차 제안 심사를 통과해야 함
- 모든 CCS 프로젝트가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산림청은 탄소 포집·격리 목적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는 국유림과 초원의 영구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임
- 또, CCS 제안서는 식수법 등 국가환경정책법을 준수해야 하며, 산림청 승인권자 및 탄소 격리 우물을 허가하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서를 정식 제출할 수 있음
- 산림청은 "이번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에 더욱 기여할 것"이며 "CCS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의 요구와 의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임팩트는 2023.11.9) 김환이 기자